
제2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일시 1958년4월10일(단기4291년) 상오10시29분

개회식순

1. 개식
 2. 국민의례
 3. 개회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식
-

(10시 29분 개회)

○간사장 김형익; 지금부터 제21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

(일동 국기에대한경례)

지금 의장님의 개회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오늘은 우리서울특별시의회 제21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번 임시회의이후로 그다음날부터 시작해서 우리행정당국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심의하는데에 여러 동지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모든 만남을 제쳐놓고 연일 20여일동안이나 예산을 심의하고 오늘 심의를 의결하게된 이회의를 열게 된것이 올습니다.

그동안 여러동지들의 그 노고를 깊이 감사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때는 바야흐로 혹독한 공기는 다 지나가고 대단히 화창하고도 순풍이 불어오는 이 꽃피는 시절을 당해서 모든 만물이 변함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의원께서 마음가운데에 생각하고 느끼는바도 적지않은줄 압니다.

과거에 우리서울시의회가 생긴이후 160만시민의 기대는 막대하게 컸든것이올시다.

처음으로 발족한 우리서울시의회가 일년여에 걸어나오는 동안에 여러가지 처음 발족한만큼 조례안을 정하는것과 많은 일을 해나왔든것이 올시다.

그러나 불행히도 억센 바람이 한번부는 바람에 우리 시민에게는 많은 가슴아픈일을 당했고 또한 시민에게 대해서는 죄송하기 짝이없이 우리가 느끼는 바이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혹여 일을해나가는 동안에 다소 간 오를막도있고 내릴막도 있는것이나 이때가 오늘날 죽은 나무에서 다시움이터서 새싹이나고 비로서 아름다운 꽃잎을 내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원들께서 그가운데에 느끼는바가 크신줄알고 우리시민이 우리에게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기대하고있는지를 여러의원들께서 잘 아실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맡은바 임무를 해나가는중에 좀더 노력을 해서 성의있는대로 자기의 성력을 다기우려서 우리시민의 기대하는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에 남은 우리임기를 마칠때까지 적극노력하셔서 우리임기가 완수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또한 오늘 상정한 특별한 주요안건으로서는 경정예산안을 의결해주시는것하고 그외에 일시차입에대한문제 등등 여러 안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머리를 썩혀주시고 또한 성의를 다해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또한 행정당국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말씀으로서 우리동지들에게 부탁하고 개회사를 마치는 바이올시다.

○간사장 김형익; 다음은 시장님께서 인사의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시장 허정; 제21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각분과위원회에서 심의중이든 91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보게되는데 대하여는 그동안 시정운영을 위하여 애김없는 노고를 기우려주신데 대하여 만공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추가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같이 소기한바의 성과가 잘 견어되여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바입니다.

이밖에도 본회기중에 상정심의될것으로 보여지는 “일시차입조건”에 있어서도 또한 현재 당면하고있는 시재정의 애로와 아울러 금년에도 예산집행에 긴급성등을 잘살피여 서울시민의 복지가 날로 더욱 증진되도록 많은협조가 있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단기4291년4월10일

서울특별시장 허 정

○간사장 김형익; 다음은 만세삼창을 내무분과위원장 김제윤의원께서 선창해주시겠습니다.

(김제윤의원 선창으로 일동만세삼창)

이것으로서 개회식을 폐회합니다.
약5분후에 임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8분 폐회)